

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언론기사
모음집
(2016년)

목 차

I. 신문기사

2016-01-18 【매일경제】	베트남에 취업기회 많다 전해라 1
2016-03-08 【ETNEWS】	청년 글로벌 보부상, '제2의 대우맨'과 손 잡는다 2
2016-03-22 【ETNEWS】	대우그룹 창립 50주년 1년 앞으로, '글로벌 청년경영 재조명' 4
2016-03-30 【매일신문】	일취월장<日就月將>, 그리고 일장춘몽<一場春夢> 6
2016-04-12 【한국경제】	부동산 들썩이는 미얀마...외식·건설업 뜬다 8
2016-05-12 【동아일보】	입사때부터 '매니저'... 고속성장 베트남, 승진도 고속 10
2016-05-27 【중앙일보】	베트남경제수도' 호찌민은 韓경제동맹국?...현지서 만난 한국기업들 12
2016-05-29 【경남일보】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진주 설명회 18
2016-06-03 【경남일보】	청년취업, 해외에서 답을 찾자 19
2016-07-20 【이뉴스투데이】	한국폴리텍 익산캠퍼스,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MOU체결 21
2016-08-03 【아주경제】	박창욱 대우세경연 사무국장 "글로벌YBM은 대우가 그리는 미래" 23
2016-08-04 【아주경제】	"대우맨들의 못다 핀 꿈 '세계경영'...청년들에게 전수합니다" 26
2016-10-05 【한국경제】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아시아발전재단과 상호협력약정 체결 27
2016-10-19 【동아일보】	실습위주 교육 1년..."창업의 꿈 착착" 29
2016-11-01 【조선일보】	"들은 얘거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창업했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30

[취재수첩] 베트남에 취업기회 많다 전해라

지난해 말 베트남 취재 차 알루미늄 전문 업체 알루코 박닌 공장에 다녀왔다. 삼성전자 발주 물량을 맞추느라 회사는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그 와중에 현지인 틈에서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제 시간에 물류를 보내야 하는 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여직원이 있었다. 박진희 씨(27)였다.

아주대 출신인 그는 4년 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끄는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사업(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GYBM) 연수생 신분으로 베트남에 처음 왔다. 경영학 수업 외에도 10개월 여간의 혹독한 베트남어 교육을 받은 후 그는 베트남 경제의 가능성을 봤단다. 그길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가 알루코 입사였다.

박 씨는 "처음엔 베트남어 한마디도 못했다. 정말 10개월 간 언어 습득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한국에서였다면 치열한 취업 전쟁을 치러야 했겠지만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 기업과 비슷한 조건으로 현지 채용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회사 배려로 현지 대학원을 다니면서 베트남 전문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베트남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8%, 올해는 중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덩달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역시 일본을 밀어내고 전 세계 1위다. 현지 진출 기업인들이 만나보면 아쉽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건 바로 사람 구하기였다.

한 현지 기업인은 "청년 실업이 그렇게 심각하다지만 여기엔 오히려 청년들이 귀하다. 약 450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베트남어 구사할 줄 아는 청년이면 서로 오라는 분위기다. 이만큼의 일자리가 있다는 말인데 대기업, 공무원만 바라보는 세태가 아쉽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 9.2%, 1999년 통계 이래로 최고치란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이후 중동에 기회가 많으며 "한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다 중동으로 보내야"라는 발언을 했다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베트남어가 배우기 어렵고 기후며 환경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자는 육 먹을 각오 하고 베트남 한번 들여다 보라 권하고 싶다. '사업 성공의 8할은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취업 도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http://news.mk.co.kr/newsRead.php?no=47386&year=2016>

청년 글로벌 보부상, `제 2의 대우맨`과 손 잡는다

청년 글로벌 보부상이 '제 2의 대우맨'과 손잡았다.

태국 등 신흥국 해외 취업부터 독일 등 선진시장 창업까지 가능한 글로벌 기업가를 만들게 된다.

청년희망재단과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K-무브(MOVE) 사업'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태국지역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사업(Young Business Manager)을 공동 진행한다.

청년희망재단과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내달 청년 약 40명을 선발해 국내에서 3개월 교육 후 태국에서 현지 언어와 실제 업무 등을 가르치며 현지 지역전문가로 양성한다. 이후 3개월 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대우그룹의 '세계경영' 이념을 잇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2011년부터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사업을 시작해 해외 취업이나 창업을 염두에 둔 청년을 선발해 교육해왔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현지어는 물론이고 업무 관련 실질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약 1년간 교육해왔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상주하며, 우리 청년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황철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의 '청년 글로벌 보부상' 양성 계획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청년 글로벌 보부상은 청년 수출 전문가를 양성해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황철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 해외 진출의 시발점이 됐던 대우그룹 세계경영 이념과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을 돕는 꿈이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10월 ‘청년희망펀드’ 출범을 계기로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정부 기관 및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하게 협력 중이다. 전문가 네트워크와 아이디어를 통해 한계를 맞은 채용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금화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국장은 “청년희망재단과 태국사업부터 손을 잡음으로써 재원이 늘어나 기존 해외 취업에부터 창업까지 교육수준과 목표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빠른 선점이 필요한 동남아시아 지역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의성 청년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청년희망재단 사업은 기존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채용시장을 개척하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차원의 도전이자 실험”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첫 번째로 채용하고 싶은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http://www.etnews.com/20160308000192>

대우그룹 창립 50주년 1년 앞으로,
‘글로벌 청년경영 재조명’



〈대우세계경영연구회(회장 장병주)는 22일 저녁 대우그룹 창립 49주년 기념행사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대우그룹이 창립 50주년을 1년 남겨뒀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청년글로벌경영’으로 주목받으면서 대우그룹의 가치도 재조명될지 주목된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회장 장병주)는 22일 저녁 대우그룹 창립 49주년 기념행사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정기총회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내년 50주년을 앞두고 세부 준비계획을 정리하고 밝히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글로벌청년사업가(Global YBM)양성사업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국내를 오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석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측은 “올해는 내년 50주년을 앞둔 준비를 겸하는 자리로 조용히 치를 계획”이라며 “김우중 회장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우그룹은 1967년 3월 22일 창립됐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로 널리 알려진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은 1980년대부터 동유럽을 비롯해 신흥시장 개척에 앞장서왔다. 1997년에는 현대그룹에 이어 재계 순위 2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IMF 이후 극심한 부채로 인해 1999년 해체됐다.

대우그룹의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세계경영'이 '청년경영'으로 이어져 대우그룹의 명예회복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옛 대우맨들이 주축이 된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직을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세계경영 세미나, 기념사진전 개최, 종합어록 발간, Global YBM 상 제정을 진행한다. 또 대우그룹 관련 기념관을 만들고 이른바 '김우중학교'로 알려진 세계경영학교(GYBM 예비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글로벌 청년사업가 발굴 프로젝트(Global YBM)'의 일환으로 세계 경영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결선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강도 높은 장기합숙교육으로 이뤄지는 'Global YBM'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lobal YBM은 청년 일자리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청년 해외 취업 및 창업 성공사례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2011년 베트남 1기 40명에서 출발해 지난해까지 총 4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20만명을 양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벤처기업 경영인은 "김우중 전 회장에게 연락하면 거의 베트남에 있다고 말한다"며 "한국 젊은이들이 왜 해외로 안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자주 강조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nt@etnews.com
<http://www.etnews.com/20160322000396>

[데스크 칼럼] 일취월장<日就月將>, 그리고 일장춘몽<一場春夢>

오래전 신문을 들춰보아, 아니, 포털사이트 과거 기사를 열심히 검색해봐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우리 기업인 2명의 이름 석 자를 듣게 된 것은 지난주 휴가 때 들렀던 베트남 호찌민에서였다. 한 명은 경우야 어찌 됐든 실패한 기업인으로 낙인찍혔던 사람, 또 한 명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권과 결탁해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호되게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 두 기업인의 이름을 떠올리게 해준 사람은 호찌민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청년 A씨였다. 그는 노무현 정권 당시 유명세를 탔던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태광실업 베트남 현지법인에 다니고 있었다. A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주도해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사업(Global Young Business Manager`GYBM) 연수생 출신이기도 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GYBM 연수를 위해 베트남에 왔고, GYBM 연수생 채용을 태광실업이 결정하면서 태광실업의 신입사원이 됐다고 했다. 하노이에서 지난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된 GYBM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는 A씨를 비롯해 100명이며 이들 전원이 베트남에서 취업에 성공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A씨에게 베트남이란 기회의 땅을 소개해준 격이고, 박 회장은 A씨에게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는 취업의 문을 열어준 사람인 셈이다. 지금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업인 리스트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김 전 회장과 박 회장. 그들은 이역만리 베트남에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를 더해 내 집 마련`인간관계`꿈`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 세대, 대한민국 고학력 구직자들에게 글자 그대로 은인(恩人)이 됐다.

김 전 회장이 이끄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베트남을 비롯해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서 GYBM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400명이 넘는 수료생이 무료로 교육을 받았다. GYBM을 통해 그 나라 언어에다 경영 지식 등을 스파르타식으로 배우고 익힌 우리 젊은이들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원하는 인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 회장은 베트남에서의 나이키 신발 제조업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연간 5조원대 매출을 올리게 될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비롯해 비료 제조회사 설립에다 베트남 산업단지 분양까지 하고 있었다. 한때 정치 바람에 휘말렸지만 박 회장의 태광실업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박 회장의 태광실업이 현재 분양 중인 호찌민 인근 산업단지 경우, 대구 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비롯해 개성공단에서 나온 지역 기업까지 앞다퉈 달려가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낼 일자리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현상이었다.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다 ‘일취월장’(일자리 많이 만들어 취직시키고 월급 받아 장가'시집 보내자)이라는 경북도의 올해 구호가 갑자기 떠올랐다. 고교생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머지않아 기자에게도 닥칠 일이라 생각하니 잠이 달아났다. 50'60대 지인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바로 ‘자식이 아직 없고 있다’는 것임을 잘 알기에 그랬다.

이불을 뒤적이다 각각 80대, 70대 나이에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일자리를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있는 김우중 전 회장과 박연차 회장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봤다. 당시엔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넘치는 조짐이 보였으리라. 그들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20대에 창업했고 이를 발판으로 규모는 다르지만 해외로 나가 성공이라는 것을 맛봤다.

신문을 보니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쏟아낸 일자리가 1천100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노년의 회장들은 이렇게 되받아칠지 모른다. ‘일취월장’의 꿈은 이제 밖에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 낯설고 외로운 나라에서 고약한 날씨와 싸우며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공무원이 꿈입니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이를 수 없는 희망이라는 것을. 정치인만 믿어선 일장춘몽이 될 뿐이라는 것을.

최경철 경북부장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6704&yy=2016

부동산 들썩이는 미얀마...외식·건설업 뜬다

대우세계경영세미나...기업인 300여명 참석

부동산 가격 크게 오르며 철강·창호 등 전자제품 주목
한류 타고 '한식 열풍도'
젊고 성장 빠른 '기회의 땅'...까다로운 규제가 걸림돌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11 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미얀마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미얀마가 베트남의 뒤를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문민정부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출범해 미얀마 경제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얀마의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어 외식업, 전자제품 사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관측됐다.

○“부동산 활기에 주목해야”

옛 대우 임직원 모임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11 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얀마 경제 환경을 점검하고 투자 기회를 전망하는 ‘대우세계경영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계 전문가와 미얀마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미얀마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는 양돈호 코리아비전 사장은 미얀마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경제 변화를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는 고급식당의 90%가량이 외국인이었다고 현지인은 보기

어려웠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현지인의 이용이 절반 이상으로 늘었고 외식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 외식업체 유가네, 불고기브라더스, 롯데리아 등의 미얀마 진출 사례를 언급하며 “외식업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활성화는 건설업의 성장도 이끌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양 사장은 “LG 도 미얀마에 시멘트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며 “건설에 필요한 철강, 창호 등 건자재 사업이 성과를 내기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새 정부 등장... 속도 내는 경제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얀마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반세기 넘게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정치·경제 환경이었다. 젊은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에도 많은 기업이 진출을 망설인 이유다. 정 연구원은 “새 정부는 아직 남아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이 1989년 중단한 일반특혜관세(GSP)를 미얀마에 다시 제공하는 방안도 1년 내엔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새 정부는 에너지사업, 전력, 통신, 수송, 농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권과 가까운 입지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꼽았다.

미얀마는 노동인구가 3000만명인 데다 평균 나이가 27.2세여서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발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요즘은 서비스업에서 성공할 기회가 늘었다고 정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류를 활용, 한국의 종업원 중심 경영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더욱 성공하기 좋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잠재력 높지만 까다로운 측면도

뚜라 우 땃 우 마웅 주한 미얀마대사는 “미얀마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미얀마가 갖고 있는 사업적 이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을 기대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양 사장은 “뜨는 시장이라고 막연히 진출했다간 실패하기 쉽다”며 “미얀마는 잠재력이 높지만 까다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맞는 사업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사장은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는 대표 애로사항으로 금융시스템을 꼽았다. 미얀마는 금융시스템이 낙후돼 있어 외국인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1149051>

[청년드림] 입사때부터 ‘매니저’... 고속성장 베트남, 승진도 고속

[1부 글로벌 챌린지의 현장] <7·끝> ‘취업 블루오션’ 베트남



베트남어 배우고... 지난달 18일 베트남 하노이의 하노이문화대학에서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 과정’에 참여한 한국 청년들이 베트남어 수업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베트남 언어와 문화, 역사 등을 배운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 호찌민 외곽의 신발 제조업체 ‘성현비나’ 공장. 하늘색 작업복을 맞춰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한국말이 들려왔다. KOTRA의 ‘글로벌마케팅 인턴사업’을 거쳐 지난해 말 정직원으로 채용된 정지원(27), 박우림(25), 김현주 씨(24)가 시끌벅적한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한국인 미녀 삼총사’의 만언니 정 씨는 베트남 생활에 대해 “주 6일 근무에 찌는 듯한 더위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도 “베트남의 성장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며 활짝 웃었다.

○ 입사 2개월 신입사원도 과장 역할

인구 9000만 명이 넘는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6.7% 성장했다. 과거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며 아시아의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급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 젊은이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주관한 연수·인턴·박람회 등을 통해 베트남에 취업한 사람은 모두 205명으로 2013년 17명, 2014년 7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고속 성장하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많다는 점도 한국 청년들이 현지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다. 박상협 KOTRA 호찌민 무역관장은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만 4400여 개”라며 “베트남 현지 직원을 관리하고 한국인 경영진과의 가교 역할을 맡아줄 젊은이를 찾는 수요가 넘쳐나는데 마땅한 사람이 부족해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청년들 대부분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현지에서 창업한 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한다. 정 씨가 근무하는 성현비나 역시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 회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이다. 이곳에서 한국인 30여 명이 베트남 직원 5000여 명과 함께 일하고 있다.

정 씨를 포함한 ‘삼총사’ 모두 입사한 지 2개월 된 신입사원이지만 직책은 입사할 때부터 각 부서에서 ‘매니저(중간관리자)’다. 정 씨는 “베트남에 오기 전 영국의 신문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당시 전화 응대나 허드렛일만 했다”며 “베트남에선 인턴 때부터 관리자로 일하니 권한도 많고 책임감도 생겨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에 비해 물가가 싸지만 급여 수준은 한국 기업에 맞춰져 있다. 정 씨처럼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초봉은 2만5000~4만5000달러(약 3000만~5200만 원) 정도다. 현지 KOTRA 관계자는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입사하는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일찍 중요 업무를 맡고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지어 익히고 현지 창업에 도전

동남아 국가에서 직장을 얻고 정착하려면 ‘현지어’라는 장벽을 넘어서는 게 필수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흥옌공업단지에서 만난 유병선 씨(32)는 한국에서 첫 직장인 삼성전자를 다니다 그만두고 베트남을 찾았다. 가구 관련 일을 하고 싶어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베트남어가 발목을 잡았다.

유 씨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과정’을 통해 이를 극복해냈다. 이 과정은 매년 10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약 10개월간 베트남 언어와 직무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부의 ‘K-MOVE’ 사업으로 선정돼 연수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유 씨는 매일 오전 5시 반에 일어나 오후 10시까지 어학 공부에 매진했다. 외출이 허용되는 일요일에는 시장, 상점 등을 돌아다니며 현지인들과 어울렸다. 유 씨는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영어를 섞어 쓰지만 현지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작업 실수를 없애려면 베트남어를 빨리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에서 취업에 성공해 일하다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있다. 2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 온 이진희 씨(28)는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회사에서 통관 대행 업무를 직접 총괄하며 업무 경험을 쌓았다.

“통관 대행의 역량은 현지 세관과의 관계예요. 세관 직원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일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세관원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베트남 각 지역의 세관을 돌며 함께 술도 마시며 어울렸죠.”

올해 1월 회사를 그만둔 이 씨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그 대신 베트남 북부의 작은 도시인 라오까이로 가 물류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라오까이는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있지만 교통이 불편한 내륙지방이어서 중국과의 물류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하노이와 라오까이 사이에 고속도로가 개통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씨는 “모든 산업이 포화상태인 한국과 달리 동남아는 큰 자본이 없어도 도전할 만한 ‘블루오션’이 많은 편”이라며 “1년여의 회사 생활을 통해 닦아놓은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믿고 일단 부딪혀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60512/78049147/1#csidxd1ee4be92a2d267912fd242207bb7c7>

'베트남 경제수도' 호찌민은 韓 경제 동맹국?...현지서 만난 한국 기업들

어린 시절 TV에서 우리나라 상사맨들의 스토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경이 베트남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워낙 인프라가 부족한 시절이라 상사맨들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있으면 무작정 찾아가서 닭을 잡으며 친분을 쌓는 식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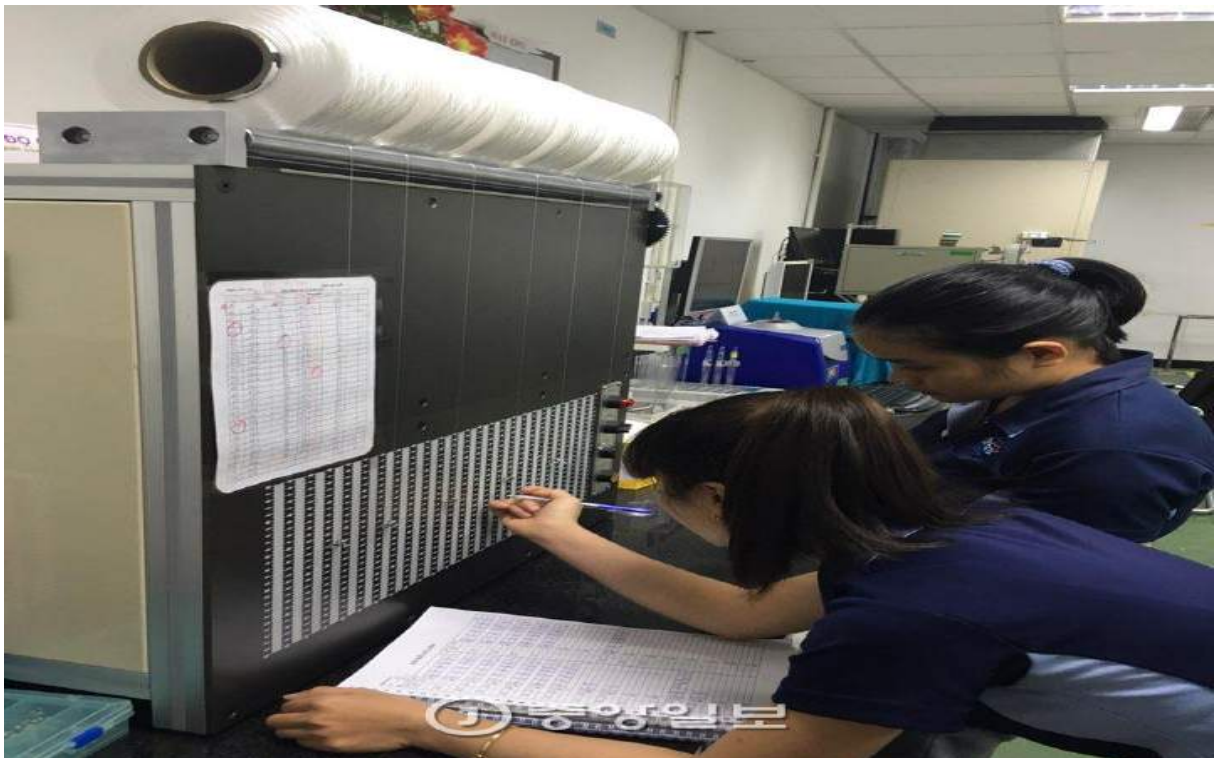
한창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호찌민 시내. 호찌민=문희철 기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 베트남 출장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열정을 새삼 느껴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마당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간판을 본다고 감동하는 건 다소 '촌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십수년전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제 베트남의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호찌민엔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했기에 호찌민이 베트남의 경제 수도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기준 호찌민의 경제성장률은 9.6%로 베트남 전체 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효성 베트남 법인 전경. [사진 효성]

호찌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효성입니다. 호찌민 1시간 거리인 연짜공장에서 스판덱스·타이어코드·스틸코드 등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성 사무직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파란색과 흰색 모자가 있는데, 이걸 착용하고 호찌민 시내에 가면 대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체 베트남 수출금액의 1%를 바로 여기 효성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더군요.



효성 스판텍스 공장 물리실험실에서 섬유가 늘어나는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현지 채용 인력.
호찌민=문희철 기자

현지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 한국식 비즈니스(K-Biz) 시스템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효성은 한국 울산공장 시스템을 그대로 베트남에 옮겨 왔더군요. 한국 특유의 기업문화인 동료애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효성 현지 채용 인력의 이직률은 생산지 2%, 관리직 1.6%에 불과합니다. 애사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베트남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죠.



효성 타이어코드 공장 실험실 벽을 현지 근로자들이 꾸며놓은 모습. 호찌민=문희철 기자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공장 근로자들 중 여성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효성 스판텍스 공장에는 남성 근로자보다 여성 근로자가 훨씬 많더군요. 베트남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남성들은 전쟁에 참여했었다는 이유로 집앞에서 도박을 한다거나 베트남 커피를 즐기는 경우가 다소 있고, 돈을 번다거나 생계를 꾸리는 건 여성이 담당하던 문화가 있다고 하더군요. 셔터맨을 꿈꾸는 남성들이라면 이민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농담입니다. 이제는 옛날 얘기예요.)



효성 공장에서 근무 중인 여성 현지 근로자. 호찌민=문희철 기자

베트남이 아직 공산국가인지라 경찰(공안)이 뒷돈을 요구하는 일도 공공연히 벌어진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통상 300 만 동(약 15 만원) 정도를 올려두면 즉각 풀려난다고 하더군요. 외국인이라서 돈이 없다고 하면 친절하게 인근 ATM 기기까지 안내해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아래 사진과 같이 갈색 옷을 입은 분들이 교통순경입니다.

현지 기업인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과정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봅니다. 분명 투명하지 않은 절차도 있었고, 황당한 사건도 수없이 벌어졌을 겁니다. 숲한 시련을 뚫고 호찌민 경제를 사실상 움직이는 국내 기업인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의 교통경찰 제복. 호찌민=문희철 기자

하노이에서는 전·현직 대우그룹 임직원 모임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GYB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 졸업생을 선발해 동남아 현지에서 무료로 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문화대학 건물에서 교육에 한창인 GYBM 교실을 가봤습니다.



일명 김우중 사관학교로 불리는 글로벌 YBM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 이곳을 졸업하면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하노이=문희철 기자

이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스스럼없이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인사 예절이 GYBM의 중요한 교육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졸업한 학생은 거의 100%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탓입니다. 베트남 GYBM 5기 졸업생은 100명에 불과하지만 90여 개 기업이 최대 10명까지 졸업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GYBM은 설명하더군요.

성강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GYBM 교육팀장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중간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베트남어를 구사해 현지인을 관리하면서, 한국어·영어가 능통해 본사 직원과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GYBM은 동남아에서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인력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본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들이 열정적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 동맹국 수준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인들의 구슬땀이 있기에 향후 양국 협력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http://news.joins.com/article/20088279>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진주 설명회

내달 2일 오후 1시 경상대... 7월 1일부터 원서접수

분홍코끼리가 응원하는 일자리 빅뱅프로젝트

경남일보와 진주일자리 희망센터(이사장 정인철),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올해도 일자리 빅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GYBM) 설명회'를 개최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GYB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에 선발되면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국내·베트남 등 해외교육 1년)을 거쳐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등에 취업을 하게 된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진주청년들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설명회는 7월 2일 오후 1시, 경상대 BNIT R&D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박창욱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선다. GYBM 프로그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직접 이끌고 있으며 올해는 베트남 100명, 미얀마 20명, 인도네시아 40명 등 총 1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7월 1일부터 10일 동안이며, 면접은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 초에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4년제 정규 대학졸업생, 그리고 올해 8월 졸업예정자면 가능하다. 다만 현지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춰야 한다.

정인철 진주일자리희망센터 이사장은 "올해는 160명을 뽑는다. 지난해에는 진주지역 청년들이 8명 지원해 6명이 합격했으며 올해 6월이면 연수를 마치고 전원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 등에 취업을 하게 된다"며 "도전정신이 있는 진주지역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진주일자리센터는 진주지역 지원자를 위해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서류전형, 면접 등에 필요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1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은 전액무료이며 현지포함 1년 연수과정을 마치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100% 취업되는 취업보장형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문의나 신청은 진주일자리 희망센터(055 742-2484~2485)로 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raggi@gnews.co.kr

<http://www.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182>

청년취업, 해외에서 답을 찾자

본보·진주일자리 희망센터, 경상대서 2016 GYBM 설명회



▲ 2일 오후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주관하는 ‘2016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설명회’가 경상대학교 BNIT R&D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창욱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국장이 해외취업을 원하는 진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보와 진주일자리 희망센터,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일자리빅뱅프로젝트 일환인 ‘2016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GYBM:Gobal Young Business Manager) 설명회’가 2일 오후 경상대 BNIT R&D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창욱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박창욱 사무국장은 “인생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해외취업에 도전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는 베트남 100명, 미얀마 20명, 인도네시아 40명 등 총 160명의 연수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진주지역 청년들이 8명 지원해 6명이 합격했는데 이달이면 연수를 마치고 전원현지에 있는 한국기업 등에 취업을 하게 된다”며 “도전정신이 있는 진주지역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원자격은 34세 이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16년 8월)며 약 1년간의 과정을 밟게 되는 연수생은 연수비 전액 지원과 더불어 수료시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원서접수는 7월 1일부터 10일 동안이며, 면접은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 초에 할 예정이다.

진주 일자리 희망센터(055-742-2484, 2485)로 하면 된다.

한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대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만든 사단법인으로 회원은 4000여명이다. 박창욱 사무국장 역시 대우 출신으로 1985년 (주)대우 무역부문에 입사해 2000년에 퇴직했다. 고향은 사천이다.



▲ 2일 오후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주관하는 ‘2016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 설명회’가 경상대학교 BNIT R&D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창욱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국장이 해외취업을 원하는 진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지훈 인턴기자 kugujh@gnews.co.kr

<http://www.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623>

이뉴스투데이 | 2016-07-20

한국폴리텍 익산캠퍼스,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MOU 체결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왼쪽에서 4번째)과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박창욱 전무(왼쪽에서 5번째)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이뉴스투데이 김지만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20일 교내 본관 회의실에서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회장 장병주)와 글로벌청년인재양성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정규과정(전문학사과정, 기능사과정)과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일학습병행제사업 등 취업 및 재취업교육,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들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정과제인 고용률 80%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전방위 비즈니스 시대를 맞이해 도전정신이 남다른 미래를 이끌어갈 해외지향형 젊은인재 발굴, 여학과 직무교육, 인성 등 글로벌 인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체계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산업기술 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해 관리업무 및 생산업무 전반에 걸친 전문가를 양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기관은 글로벌 청년인재양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사업 및 홍보, 교육지원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해 협력하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

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청년들의 취업 및 청년 사업가 양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의 협력으로 향후 인재양성사업이 활성화되는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만 기자 whyjiman@enewstoday.co.kr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865>

아주경제 | 2016-08-03

[아주초대석] 박창욱 대우세경연 사무국장 “글로벌 YBM은 대우가 그리는 미래”

시행 5년째, 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서 시행
400여명 수료생 100% 취업 성공



박창욱 대우세계경영연구원 사무국장[사진=박창욱 대우세계경영연구원 사무국장 페이스북]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제헌절이자 초복이었던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재단 빌딩 18층 대우세계경영연구원(이하 세경연) 사무실.

박창욱 사무국장(한국지식가교 대표 겸 경희대학교 겸임교수)은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연수팀장들과 토론을 한창 진행중이었다. 무려 2박3일에 걸친 무박 연속 토론회였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의견이 끊임없이 개진되며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과정(Global YBM)’ 출범 5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박 사무국장은 "과거가 아닌 미래,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옛 대우맨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방향을 찾고자 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내년은 대우그룹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때문에 박 사무국장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11년 3월 22일 대우그룹 창립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앞으로 7년 뒤, 대우 창립 50주년에 다시 보자”면서 “앞으로 20년을 보면서 인재를 키우자. (인재를 키우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이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기업인들)가 하자”며 ‘국가 봉사론’을 주창했다.

김 회장의 제안에 따라 세경연이 만든 것이 바로 글로벌 YBM이다. 김 전 회장과 대우인들이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봉사가 바로 청년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지화 교육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단기간에 만들어낸다는게 목표였다.

박 사무국장은 “글로벌 YBM을 위한 별도 교육팀을 구성하고 3개월여간 해외 현지의 한국 기업을 직접 방문, 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뒤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우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영의 노하우, 특히 인재 양성과 유지 관리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아 지금의 과정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YBM의 선발기준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연·지연 등의 ‘스펙’과는 철저히 무관하다. 박 사무국장은 “오로지 열정으로 자기만의 날개를 달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대상”이라며 “자신들의 뜻과 관계없는 조건 때문에 스스로 무능력자라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극성과 열의가 있는 자로 해외에서 장기적 취업의사가 확실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대우DNA’를 투입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사’로 키워내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YBM은 무슨 일을 맡더라도 전방위 적응이 가능하도록 마케팅, 무역, 생산, 품질, 기획, 재무, 일반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현지 전문교육기관에서 4년간 공부할 것을 1년 만에 마치도록 했다.

박 사무국장은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는 김우중 전 회장의 강연도 포함돼 있다. 나를 비롯한 세경연 관계자들도 정기적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면서 “수료생들에게 세경연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대우맨’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있지만 대우맨들 모두가 수료생들의 능력을 끝까지 보증한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시행 5년째를 맞은 2016년. 글로벌 YBM은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교육과정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지로 확대됐다. 베트남은 5기, 미얀마는 2기, 인도네시아는 1기 교육과정을 마쳤다. 수료생 수만 400여명에 달하는데, 100% 가까이 현지 업체에 취업했다.

박 사무국장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반둥의 반둥공대(ITB)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 글로벌 YBM 1기 수료식에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전 회장과 장병주 세경연 회장 등도 참여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1기 수료생 39명 모두 취업이 확정됐다.

이제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참가 신청자들이 몰려오고 있단다. 올 하반기 실시하는 베트남 6기

프로그램도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집을 완료했다.

박 사무총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 전 회장의 말처럼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 정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세경연은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더 높고, 더 멀리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들이 진정한 대우, 더 나아가 한국의 미래다”고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junews.com

<http://www.ajunews.com/view/20160801101116953>

“대우맨들의 못다 핀 꿈 ‘세계경영’... 청년들에게 전수합니다”

인터뷰

박창욱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국장



지난 6월 30일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청년사업양성과정(Global YBM) 인도네시아 1기 과정 수료생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18층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실을 방문해 박창욱 사무국장 등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 사무국장(앞줄 왼쪽 첫째)과 수료생,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창욱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국장 페이스북]

제헌절이자 초복이었던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18층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이하 세경연) 사무실.

박창욱 사무국장(한국지식기초 대표 겸 경희대학교 겸임교수)은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연수팀장들과 토론을 한창 진행 중이었다. 무려 2박3일에 걸친 무박 연속 토론회였다. 하지만 아이디어와 의견이 끊임없이 개진되며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청년사업양성과정(Global YBM)’ 출범 5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박 사무국장은 “과거가 아닌 미래,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옛 대우맨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방향을 찾고자 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내년은 대우그룹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때문에 박 사무국장의 행보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11년 3월 22일 대우그룹 창립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앞으로 7년 뒤, 대우 창립 50주년에 다시 보자”면서 “앞으로 20년을 보면서 인재를 키우자. (인재를 키우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이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기업인들)가 하자”며 ‘국가 봉사론’을 주창했다.

김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세경연이 만든 것이 바로 글로벌 YBM이다. 김 전 회장과 대우인들이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봉사가 바로 청년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지화 교육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단기간에 만들어낸다는 게 목표였다.

박 사무국장은 “글로벌 YBM을 위한 별도 교육팀을 구성하고 3개월여간 해외 현지의 한국 기업을 직접 방문, 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뒤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우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영의 노하우, 특히 인재양성과 유지 관리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아 지금의 과정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YBM의 선발기준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연·지연 등의 ‘스펙’과는 철저히 무관하다. 박 사무국장은 “오로지 열정으로 자기만의 날개를 달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대상”이라며 “자신들의 뜻과 관계없는 조건 때문에 스스로 무능력자라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극성과 열의가 있는 자로 해외에서 장기적 취업 의사가 확실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대우DNA’를 투입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사’로 키워내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YBM은 무슨 일을 맡더라도 전방위 적응

“
옛 대우맨 모여 국가경제 기여 모색
글로벌 YBM 만들고 해외인재 양성
스펙 무관 선발 철저한 현지화 교육
올해 1기수료생 전원 취업확정 성과”
”

이 가능하도록 마케팅, 무역, 생산, 품질, 기획, 재무, 일반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현지 전문교육기관에서 4년간 공부할 것을 1년 만에 마치도록 했다.

박 사무국장은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는 김우중 전 회장의 강연도 포함돼 있다. 나를 비롯한 세경연 관계자들도 정기적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면서 “수료생들에게 세경연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대우맨’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있지만 대우맨들 모두가 수료생들의 능력을 끝까지 보증한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시행 5년째를 맞은 2016년. 글로벌 YBM은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교육과정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지로 확대됐다. 베트남은 5기, 미얀마는 2기, 인도네시아는 1기 교육과정을 마쳤다. 수료생 수만 400여명에 달하는데, 100% 가까이 현지 업체에 취업했다.

박 사무국장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반둥의 반둥공대(ITB)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 글로벌 YBM 1기 수료식에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전 회장과 장병주 세경연 회장 등도 참여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1기 수료생 39명 모두 취업이 확정됐다.

이제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참가 신청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올 하반기 실시하는 베트남 6기 프로그램도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집을 완료했다.

박 사무국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 전 회장의 말처럼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 정말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세경연은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더 높고, 더 멀리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들이 진정한 대우, 더 나아가 한국의 미래다”라고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대우그룹 해체 때까지 15년 근무...“해외인력 양성으로 국민에 속죄”

박창욱 사무국장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이하 세경연)는 대우 출신 임직원들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대우가 이룩한 성과와 가치를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공유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만든 모임이다.

본래 대우그룹 출신 OB들의 모임은 1990년 발족한 ‘대우인회’가 있었지만, 그룹 임원 출신들의 모임이라 모든 대우인이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원은 물론 대우그룹 가족사에 근무했던 대리 직급 이상의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세경연’이 2010년 10월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박창욱 세경연 사무국장(사진)은 “‘세계경영’은 김우중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대우그룹이 추진했던 경영철학이었다”며 “세경연은 ‘세계경영’의 이념을 체계화해 전직 대우 임직원들의 자부심과 동료애를 부활시키고 이를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발족됐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이 세경연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10년. 대우 재직 시절 그의 업무 추진력은 물론 구성

원들을 끌어안은 포용력과 인격을 눈여겨본 전직 임원들의 세경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요청 때문이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 한쪽에 대우를 간직하면서 다시 한 번 대우의 영광을 재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는 박 사무국장은 선배들의 요청을 두말없이 받아들였다.

박 사무국장은 1985년 대우에 입사해 2000년 대우그룹이 해체될 때까지 15년간 재직했다. 이후 섬유·의류·패션을 아이템으로 하는 GB STYLE에서 8년간 경영총괄 전무를 지냈으며 2005년부터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지식기초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우맨들은 또다시 과거의 굴레 때문에 아쉬움을 곱씹어야 했다. 국회의 ‘김우중 추경

법’ 제정, 옛 가족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사태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터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세경연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청년사업양성과정(Global YBM)’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우리는 과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늘 갖고 있다”며 “인력양성 사업은 국민에 대한 속죄의 심정으로 대우맨들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인으로 키우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현재 ‘김우중 학교’ 건립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22일 대우그룹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발표된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김우중 학교는 현재 글로벌 YBM을 정규 학교로 격상시키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대우의 ‘세계경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글로벌 YBM에 집약해 실제 경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사무국장은 이를 통해 대우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후배 기업인들이 세계 경영을 성공시켜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한국경제 | 2016-10-05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아시아발전재단과 상호협력 약정 체결



장병주(오른쪽)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과 김준일 아시아발전재단 이사장(락앤락 회장)이 5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내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실에서 상호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 /사진=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회장 장병주)는 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 (주)락앤락 회장)과 대우재단빌딩 내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사무실에서 '청년들의 해외취업 진출과 조기 은퇴자 및 중·장년층의 재취업,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향후 글로벌 진출사업에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2016년 베트남 Global Young Business Manager(GYBM, 글로벌청년사업가) 사업에 아시아발전재단이 장학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본 사업을 공유하기로 했다.

약정식에 참석한 장병주 회장과 김준일 이사장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해외에 진출한 중견 중소기업들의 인재 구인난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상호 공감했다"면서 "국내 청년들

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GYBM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약정을 통해 양 기관은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정작 글로벌 경기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조기 은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중·장년층의 실업과 불완전 취업문제 역시 날로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이 급상승 있기에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알선, 재교육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아시아 각국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상생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2009년 전직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정회원은 4500여명이며 해외에 30여 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글로벌 YBM(Young Business Manager, 청년사업가) 양성,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학술세미나 및 세계경영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인 '글로벌 YBM 양성과정'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료생 전원이 현지 기업에 100% 취업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기존 국가에 태국과정을 추가하여 현재 190여명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다.

아시아발전재단은 지난 3월 (주)락앤락 김준일 회장이 자산 20억원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공익 재단 법인으로 향후 자산을 500억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시아권 문화·학술교류 지원, 아시아 의료 취약 지역 아동의 무상의료 및 장학금 지원, 동포학생 장학금 지원, 다문화 가정 2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글로벌 리더 및 동남아 지역전문가 육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0595047>

실습위주 교육 1년... "창업의 꿈 착착"

나혜정 씨(25·여)는 지난해 취업 준비로 고된 나날을 보냈다. 입사하고 싶은 곳은 은행, 높은 연봉을 받는 안정된 직장인이 되고자 했다.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 모임을 갖고 모의 면접도 수차례 볼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왔다. 그러다 문득 '은행원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원래 그가 은행에 들어가고 싶어 한 이유는 꽤 멋졌다. 돈이 없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은행 입사를 준비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처음의 목표는 사라졌더라고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냥 힘들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죠."

**국내 中企서 직무실습 교육 받고
태국선 어학학습-각종 미션 수행
"한국경제에 도움 주는 것도 매력"**

교육팀장 "공장 등 현장교육 확대"

방황하던 나 씨는 신문기사를 통해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태국) 취-창업 과정'에 대해 알게 됐다. 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태국어 학습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을 1년 동안 받는 과정이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옛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미래 인재를 육성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2009년 설립했다. 나 씨는 "대학 1학년 때 태국 여행을 갔는데, 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또 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이 과정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5월부터 시작된 교육은 4개월간 국내 교육을 마치고 현재는 태국 현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싹 틔운 청년사업가의 꿈

나 씨는 바뀌었다. 무엇보다 작년과는 달리 때 순간이 즐겁다. 이유를 묻자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지금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해 더욱 즐겁다"고 말했다.

9월부터 태국 방콕 근교 도시인 랑싯에서 진행 중인 현지 교육은 우선 어학 학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말에는 편의점 등 현지 유통 매장에 가서 시장조사를 하는 것 같은 각종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나 씨와 함께 교육을 받는 학생은 29명. 원래 30명이 선발됐지만 뺄뺄한 교육 프로그램을 견디지 못하고 1명은 태국에 오기 전 포기했다.

태국 현지 교육은 내년 3월까지 이뤄진다. 교육을 마치면 나 씨는 우선 태국에 진출한 국내 홈쇼핑 업체에서 일할 계획이다. 한국과 태국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글로벌청년사업가양성(태국) 취-창업 과정'에 참여 중인 나혜정 씨(왼쪽)와 김상남 씨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태국 랑싯 시내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태국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겠다는 꿈을 키워 가고 있다. 대우세계경영연구원 제공

의 유통에 대해 모두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홈쇼핑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알려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나 씨와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김상남 씨(30)도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약 2년 동안 필리핀에서 각종 사업을 했을 정도로 일찌감치 사업가의 꿈을 가졌다. 필리핀에서 그가 뛰어든 것은 식당 커피숍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매업이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소매업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등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을 반기지 않았다. 한계를 느낀 김 씨는 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엔 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사업가의 꿈을 펼쳐볼 계획이다. 김 씨는 "동남아 국가들은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은 제한하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며 "동남아 허브 국가인 태국에서 만든 물건을 주변 국가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현장 실습으로 꿈 다져

나 씨와 김 씨 모두 국내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한 것이 사업가의 꿈을 다져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이들은 태국에 가기 전인 8월 한 달 동안 세코닉스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무실

습 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절반은 렌즈를 일일이 검사하는 현장근로 부문에서 일했다. 나머지 절반은 현장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관리자 역할을 했다.

나 씨는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봤다. 둘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려면 조직 내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김 씨에게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과 함께 일한 게 큰 도움이 됐다. 김 씨는 "나중에 태국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현지 근로자들과 많이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역할과 고충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글로벌 청년 사업가 과정은 올해 1기 과정이 진행 중인 태국 외에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과정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중소기업 현장 실습이 들어간 것은 태국 과정이 처음이다. 이원석 대우세계경영연구원 태국팀장은 "제조 공장에서 일해 본 현장 경험은 사업가로서의 자세를 키워주고 나중에 실제로 일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며 "이러한 현장 실습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들은 얘기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창업했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

베트남 글로벌YBM 김준기 원장



"젊은 시절 해외에서 보내는 몇 년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창업하려면 그 나라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현지 사정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베트남 글로벌YBM(Young Business Manager·청년 사업가) 김준기 <사진>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 상사맨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했듯이 젊은이들이 해외 창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YBM은 한국 청년들이 해외에서 취업·창업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와 비즈니스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베트남에서 시작해 현재는 미얀마·인도네시아·태국까지 확대됐다. 김 원장은 2012년부터 베트남 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은 "'베트남 등 동남아는 인건비가 싸니까 경쟁력이 있을 것' 등은 낭만적인 생각"이라며 "먼저 현지 기업에서 일하며 경험부터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한국인들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만 가지고 창업하려다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도 말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창업이 한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청년들이 국내에서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며 "'사장'이 될 기회는 해외에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채민기 기자 chaepline@chosun.c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31/2016103102774.html

다우세계경영연구회 GLOBAL 인재포럼

취업난 속 청년층 해외취업, 경제영토 확장의 침병으로



다우세계경영연구회는 지난 21일 6년간 이어온 글로벌 YBM 프로그램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해외진출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글로벌 인재포럼'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PRATAMA건축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2.3%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더불어 20대 고용률 역시 지난해 말부터 계속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케이모브(K-Move) 사업을 통해 해외진출과 현지 취업을 독려하고 있다. 민간과 기업에서도 동남아, 중남미 등의 해외시장 공략과 동시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취업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우세계경영연구회(다우세경연)는 2011년부터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과정(Global YBM)'을 통해 대학 졸업생들이 해외에서 실용능력을 쌓고 나아가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갔다.

과거 다우그룹과 김우중 전 회

글로벌 YBM 프로그램 통해 600여명 해외취업 지원 21일 '글로벌 인재포럼' 열고 해외취·창업 미래 전망 해외취업 프로그램으로 현지 활성화·청년 취업 기여 채용자 인내심· 끈기 부족 지적... 프로그램 보완 필요

장이 추구하던 '세계 경영'과 '경제 영토 확장'을 기치로 삼은 글로벌 YBM은 경제성장 가치가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청년들을 파견해 현지 한국기업에 채용시키는 취업지원·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6개 기수를 배출한 글로벌 YBM은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4개 국가에 매년 연수생을 파견해 약 1년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6기까지 총 630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163개 한국기업에 채용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연간 1800시간

이상 진행된다.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어학능력과 글로벌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등의 커리큘럼을 배운다. 프로그램은 이수한 연수생들은 현지 한국기업에 취업해 제조업·관리·영업직 등 다양한 부서에서 활동한다.

취업 이후에도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 업무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며 현지 커뮤니티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향후 5~10년간 직무능력을 쌓은 연수생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다우세경연은 2011년부터 6년간 이어온 글로벌 YBM 프로그램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해외진출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글로벌 인재포럼'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현지 산업의 활성화와 청년의 취업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재발표자로 참여한 박철순 서울대 교수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해외시장에서 취업을 통해 현지 산업에 기여하는 물론, 지역 전문가로 거듭나 기업과 청년 모두 윈윈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현지에서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 역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양돈호 OKI인더마 대표는 "현지 인력으로 기업은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현지 상황이 열악하지만, 국내에서 위기를 맞은 제조업 분야가 동남아에서는 각광받고 있어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해외진출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려면 글로벌 YBM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현지 상황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YBM 출신 채용자들과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인터뷰 결과를 발표한 박인우 서운대 교수는 현지 기업인들이 채용자들의 끈기와 인내심 부족을 지적하는 답변이 주를 이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내심·끈기 부족의 원인으로선 열악한 현지 사정으로 인한 적응 부족과 기대보다 낮은

기업 환경 등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박철순 교수는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꿈과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높은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드림'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면적 지식과 정보, 실행력, 구성원 간 신뢰 등 역량을 갖춘 뒤 이를 어떻게 발휘할지 목표를 세워 '드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다우세경연 전무는 "이번 포럼을 통해 언급된 부분들은 교과과정과 실습교육 등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YBM 사업은 오는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제7기 모집을 진행했다. 면접을 거쳐 스베트스 100명, 스미안과 20명, 스인도네시아 40명, 스대국 30명 등 총 190명을 선발한다. 연수생들은 오는 8월 한달간 국내 제조현장에서 실습을 거친 뒤 국내 및 해외 교육과정을 거쳐 현지 한국기업에 채용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ih0404@unr.net

인터뷰 장병주 다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

"해외취업에 대한 대학의 인식 개선됐으면"

- 글로벌 YBM이 지향하는 부분은...
"글로벌 YBM 프로그램은 3개 키워드가 있다. 글로벌과 창업, 제조다. 해외취업은 취업을 거쳐 창업하는 루트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



- 글로벌 YBM을 통해 현지 취업을 한 청년들에 대한 기업체들의 반응은...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온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인내심과 끈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이고 있다. 직무교육을 위해서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교육해 내려가야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이 있다. 그래서 서사비교육을 이용해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해외취업에서 갖춰야 할 현지 교육과 기업 경영에 맞는 이치 등을 가르쳐 현지 적응과 더불어 직종에 대한 인내심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식 조직문화는 수직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현지의 문화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나...
"상충되는 부분이 크다. 한국식으로 지휘를 받는 데 가르치면서 끌고 가야 할 사항은 현지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지에서 진출한 기업인들은 이미 10여 년 이상 된 만큼 과거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조직문화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취업생도 있는데, 현지의 공장 관계자들이나 임원을 교육시키는 공부도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YBM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나...

취업·창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 목표 동남아 4개국 잠재력 커 제조업 해외취업 기회

"글로벌 YBM 프로그램은 단순히 청년 취업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한국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동남아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파견하는 4개국에는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미래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이곳에 취업·창업을 통해 뿌리내린다면 한국의 경제영토도 넓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또한 국내 청년실업 해결에도 마약해가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해외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대학에서 해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해외라는 부담 때문인지 국내 취업에만 국한하는 것 같다. 국내 고용 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이나 IT의 편중이 많은데 이 분야는 한계가 명확하다. 제조업 역시 기계화 내지로 붓와의 확산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시장상황을 잘 판단한다면 제조업 분야는 해외취업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한빛 기자